

전남도 마을공동체 입문학교 순회 운영

사전 신청 132개 마을 대상

10월까지 11개 시·군 2회씩

전문가 맞춤형 상담·교육

전남도가 마을공동체 구성,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전남마을공동체 입문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입문학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전 신청한 11개 시·군 1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열린다.

7월과 11월 광양시 증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첫 교육이 시작되며 10월까지 11개 시·군별로 2회

씩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1일차 4시간 기본교육, 2일차 마을별 맞춤 상담 과정으로 진행된다.

입문학교에서는 우수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 사업계획서 작성법, 전문가와 1대1 맞춤 상담 등 체계적 교육으로 이뤄진다. 특히 마을 특성과 주민 역량에 따른 전문가와 맞춤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부하고 기획해 마을의 색깔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문학교 운영 첫 해인 2022년 15개 시·군 86개 마을이 참여해 212명이 수료했다. 입문교육 수료자는 수료증과 함께 2024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의 가점을 받는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3045개 마을에 단계별 공

기및깎(씨앗, 새싹, 열매 단계별 500만~2000만원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사업규모별 1000만원 이내 최대 5회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을 다져왔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 마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마을공동체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남 마을공동체 입문학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를 바라는 마을(주민)은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나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한전KDN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협업

아카데미 교육생 15명 모집

전남도가 한전KDN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발판 마련을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문 교육과 실습,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지난 2022년 11개 팀 15명이 교육을 수료해 건강 학습플랫폼 구축, 외식문화 개선 청년창업, 온라인 영어학습 등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사회적경제 창업

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벗어난 연령대의 도민도 희망하는 경우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일부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위탁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메일(incu@jinsec.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오는 9월 말 열리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 창업지원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신청을 위한 전문 교육 등 특전이 제공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K 푸드 원류 남도음식... 2023 최대 타이완미식전서 인기몰이

국제남도음식문화 홍보관 운영

전남 관광·음식 전 세계에 알려

전남도가 지난 7일까지 4일간 아시아 최대 먹거리 축제인 타이완미식전에서 국제남도음식문화관 전시 홍보관을 운영, 케이(K)-푸드의 원류로서 '남도음식'과 전남 관광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타이완미식전 홍보관 운영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대표적 이벤트를 뽑는 '케이(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제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관 전시가 선정된 데 이어 3월 한국관광공사의 '2023 국제이벤트 지원 사업'을 유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제행사 확대 개최 원년을 맞아 해외홍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타이완미식전 기간 국제남도음식문화관 전시 홍보관에서는 대만 수출 상위품목인 김, 부각 등의 시식 코너가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대만 유명 온라인 상거래업체로부터 남도 우수 가공식품의 현지 판매 협회 지원을 받는 등 남도음식 수출 확대는 물론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제남도음식문화관 전시의 흥행을 예고했다.



전남도는 또 이번 타이완미식전을 주관한 대만관광협회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이은호 공관장,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이장희 지사장 등 간담회를 통해 10월 6-8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관 전시를 홍보했다. 또 9월 대만 여행사 대상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전남 관광지 팸투어 추진 등 대만 관광객 유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상수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해외 14개 언어로 전 세계에 방송하는 타이완 라디오방송인 중앙방송국(RTI)과 인터뷰에서 "이번 타이완미식전 홍보관 운영은 남도음식문화관 전시를 국제 행사로 확대 개최하기 위한 발판이 됐다"며 "앞으로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남도의 맛과 멋이 담긴 남도음식을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에 함평군

5개 단체·개인 3명 시상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한 '2023년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함평군이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에서 육성한 무궁화 우수분화 작품에 대해 단체, 개인 분야로 나눠 수형, 가지와 잎의 생육 상태, 외관의 균형미와 안정감 등을 평가한다. 5개 단체와 개인 출품작 3점을 선발

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시상한다.

이번 품평회에는 22개 시·군과 개인 등이 166점을 출품했다. 특히 함평군의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 선발된 무궁화 분화를 출품하는 등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높은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단체부문 대상은 함평군, 최우수상은 해남군, 우수상은 무안군, 장려상은 목포시와 나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개인부문 대상은 함평군의 박판규, 최우수상은 해남군의 김종관, 우수상은 장흥군의 김형순씨 등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재배 시기별 관리 방법 체계화와 시군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무궁화 재배·관리 컨설팅'이 이번 품평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선발된 우수 분화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에 출품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에 선발된 분화와 함께 연구소에서 육성하는 우수 분화 50여 점을 전국 품평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전남도가 단체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8월 전통주에 곡성 시향가 '선셋 체리'

체리와 쌀로 빚은 한국형 와인

전남도가 8월 대표 남도 전통주로 곡성 시향가에서 체리와 분질미로 100일간 저온 숙성해 빚은 한국형 스파클링 와인 '선셋 체리 스파클링'을 선정했다.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셋 체리 스파클링은 양곡의 시향가 대표가 된 근길 바라본 붉은 노을에서 영감을 얻어 여름철 인기 과일 체리를 접목한 약주다. 국내 체리 생산량 2위인 곡성의 신선한 체리를 듬뿍 넣어 그 향과 색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생과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기 위해 여러 시도를 거친 끝에 체리 맛은 은은하게 살아있으면서 분홍빛 노을을 연상케 하는 연하고 맑은 색을

피는 선셋 체리 스파클링을 출시했다.

선셋 체리 스파클링은 알코올 함량이 5%로 도수가 낮고 누룩 향이 적다. 자연 발효로 가미된 탄산이 약주보다는 스파클링 와인에 가깝다. 산뜻한 맛을 내 부담스럽지 않아 누구나 마시기 쉽다. 인공 향료나 감미료 없이 오직 곡성에서 생산한 쌀, 체리, 누룩, 물로만 빚어낸 은은하고 새콤한 체리 향으로 입맛을 돋운다. 차갑게 해 달고기, 로제소스 요리, 담백한 디저트와 곁들이면 좋다.

시향가는 이외에도 토란을 활용한 '시향가 프리미엄' 막걸리, 토란 가루를 첨가한 캔 막걸리 '말이아 막걸리아', 멜론으로 만든 '우주멜론' 막걸리 등 곡성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유튜브로 알린다

홍보 영상 '수목찌뻐' 오늘 첫 방송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9일 오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영상 '수목찌뻐' 첫 편을 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 방영한다. '수목찌뻐'는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형식에 착안해 총 8편에 편당 30분짜리 영상으로 제작됐다. 9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오후 6시에 방영한다. 영상은 행사 기간인 10월까지 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

과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은 전남대·한남대·홍익대·부산대 미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을 방문해 촬영했다. 대학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목찌뻐 게임과 수목 연관 퀴즈를 통해 비엔날레를 알리고, 성공 개회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미래 예술인에게 남도의 맛과 전통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